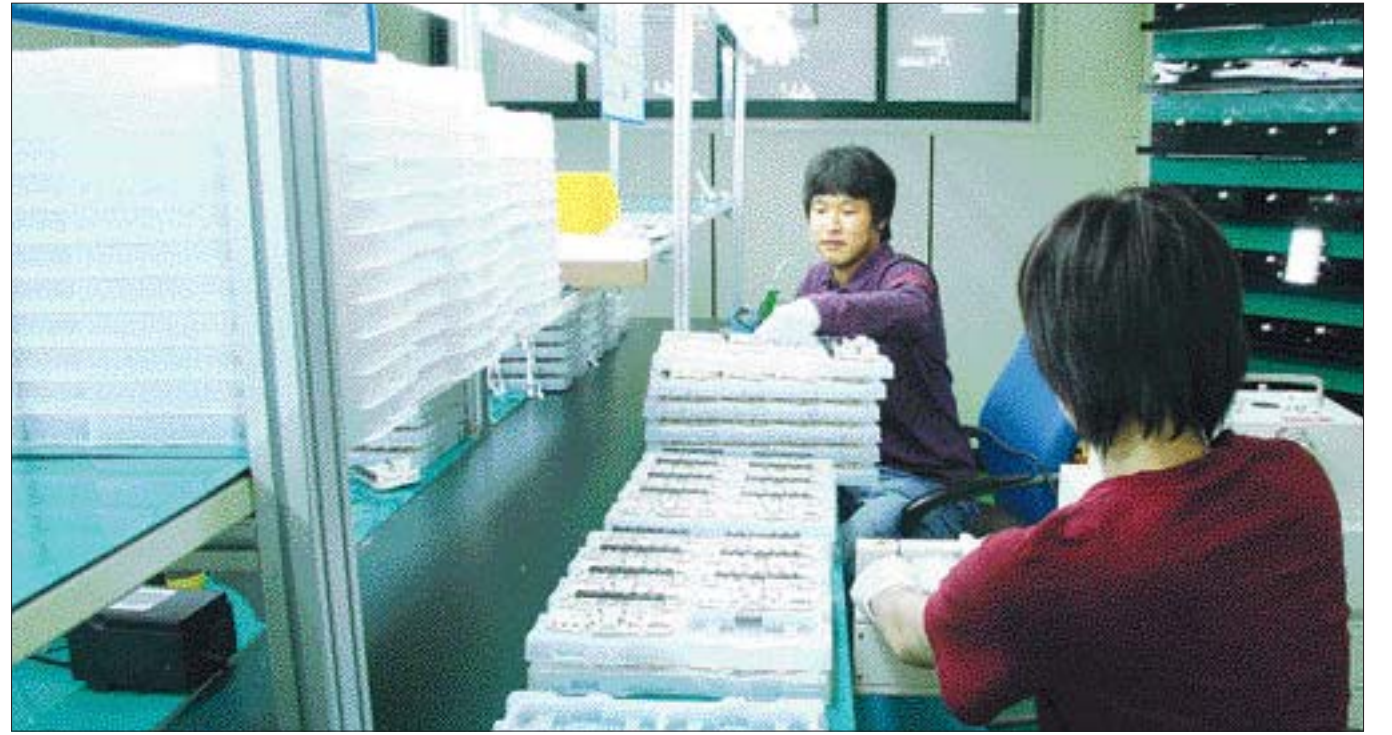


[기획]

光산업, 이제 빛고을 빛낸다



오이슬루션의 저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광송수신 모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LED라이텍 직원들이 평면광원과 직접광원을 접목시킨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LED라이텍은 향후 수송기 실내조명에도 진출한다.

9 기술로 승부하는 '스타 광기업'들

광송수신 모듈 생산업체 (주)오이슬루션

LED 조명 전문업체 LED라이텍(주)

고품질 승부를 올 '세계 톱 10' 야심

탄탄한 기술력 필립스社도 인정

광송수신 모듈 전문생산업체인 (주)오이슬루션(대표 박윤관·추안구, 광주시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내)의 올해 목표는 '세계 톱 10' 진입이다.

설립 4년째 일선현 역사를 가진 신생기업이지만, 이를 위해 오이슬루션은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현재 주력품목인 광송수신 모듈의 해외거래선은 미국·유럽 등 30여곳에 달하나, 2~3년내에 두배로 늘린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박윤관 대표는 "최근 광송수신 모듈은 기술력의 진보에 따라 성능은 향상되면서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며 "오이슬루션이 제공하는 것은 제품의 경우 가격·품질·기술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세계 제패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오이슬루션만이 갖는 기술력에서 비롯된다. 창업멤버인 박윤관·추안구 대표의 이력에서도 연구개발(R&D)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읽힌다.

박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응용물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ATT와 루슨트테크놀로지 벨 연구소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20여년간 재직했고, 세계 최대의 공학계열학회인 IEEE(국제전기전자학회)로부터 펠로우(석학회원)로 선정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삼성전자 광사업부 그룹장급 통신연구소 프로젝트 매니저를 거친 광송수신 모듈 산업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1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며 광 관련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국내 최초로 기가비이트급 광송수신 모듈을 개발한 것이다. 기가비이트 이더넷(GE·Gigabit Ethernet)-PON용 광송수신 모듈로 이

를부처진 이 제품은, 기존 광대역 수동형 광가입자망인 B-PON 방식의 155Mb(메가바이트)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1.25Gb(기가바이트)급으로 상향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추 대표는 "또 현재 상용화된 PON 광송수신 모듈의 10km보다 2배 이상이 긴 20km의 전송거리를 지닌다"면서 "크기도 기존제품의 4분의 1에 불과한데, 가격은 절반가격인 40~50달러로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FTTH(대내광케이블가입자망)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내년 GE-PON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오이슬루션의 관련모듈도 호황이 예상된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저밀도 파장분할(CWDM) 소형 광트랜시버인 SFP도 산업용 온도(영하 40~영상 85°C) 범위를 넘나들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신제품이다.

기존 제품의 상용범위인 0~75°C를 크게 확장했으며, 전송거리도 기존 80km보다 40km 늘린 120km에 달하는 등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 단파장 CWDM 양방향(BiDi) SFP의 제품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 국내외 대기업에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같은 기술력에 힘입어 지난 2005년 8억원에 불과하던 오이슬루션의 매출은 2006년 100억원, 올해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추 대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영영만 사용할 정도로 세계시장 공략에 승부를 걸고 있다"면서 "세계 광통신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는 환상적인 빛의 잔치가 벌어졌다.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14억원을 투입, 360m 거리내의 36개의 구조물에 총 천연색 LED(발광다이오드) 3만5천개를 사용해 '엘리데라(LEDera)'를 연출한 것이다.

이후 이 거리에는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찾아들었고, 인근 상가의 매출도 3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 전국 30여 지자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투미나리에 제품을 제공한 업체가 바로 LED라이텍(대표 최중삼·북구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내)이다.

'뉴턴 테크놀로지'라는 전광판 제작업체에서 기술담당상무로 일하던 최중삼 대표는 2004년 LED라이텍을 세우 독립했다.

같은 해 일본 빠찌코 회사 조명연출용 조명기기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COEX 전시관·위워크호텔 카지노·조용필 프로덕션 등으로 지평을 넓혀갔다.

서울 현대아파트파크 조명,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인테리어, 마포대교 경관, 미국 라스베이거스 프레스트리트 조명 등에 이은 전주 '엘리데라'도 LED라이텍의 작품들이다.

특히 LED라이텍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용 LED 조명연구에 돌입, 지난해 자동차용 실내조명으로 현대자동차 시험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필립스 등 국내외 유명기업들이 자동차용 실내조명에 LED를 적용했다가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고, 곧바로 저희 회사가 현대차의 시험을 통과, 협력업체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올 6월부터 프리미엄급 차량에 적용하는 LED조명

생산에 돌입했으며, 세계 최초로 평면 광원과 직접 광원을 접합시켜 모듈화하는데 성공해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일본 등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했다.

현대차에 납품되는 LED조명은 날씨에 따라 색깔이 바뀌고, 조도 조절까지 가능하다. 이에 반한 현대차연구소가 LED제품을 현대차에 적극 추천해 올해 1개 차종, 내년 3개 차종에 독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측 부족 때문에 그간 조명생산을 외주에 의존했던 LED라이텍은 현대차 납품을 계기로 광주테크노파크내 시험생산장에 350평 규모의 생산공장을 마련하고 기업설립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외주제작으로는 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최 대표의 판단에서다.

LED라이텍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매출도 크게 늘었다. 2005년 28억원, 2006년 36억원에 이어 올해는 70억~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LED라이텍의 가능성은 체계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 대표는 '인적자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직접 관련학교를 찾아다니며 직원들을 선발한 뒤 각종 교육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직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주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사의 방침을 들려주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전 직원 22명 가운데 10명이 업계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는 박사급 이상 연구원"이라며 "이같은 인적자원을 토대로 향후 3년 내에 수송기나 선박 등 실내조명등을 모두 LED라이텍 제품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기가비이트급 광송수신 모듈 국내 첫 개발 잇단 신제품 인기...올 매출 200억원 웃돌듯

세계 최초 평면·직접 광원 접합 모듈화 성공 인재육성 주력...직원 절반이 박사급 연구원

용봉(주)금보부동산
☎(06)430-6100
부동산 전문 서비스 제공
주요 부동산 정보 및 상담 서비스

LC타워(주)
☎(06)772-8004
첨단지구 LC타워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상가건물 매매, 임대, 분양
전문 중개 서비스 제공

대인동심일부동산
☎(02)223-1140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전문 부동산 서비스 제공

국민공인중개사
☎(02)635-7939
건물 매매, 임대, 분양
전문 부동산 서비스 제공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02)525-0021
부동산 전문 컨설팅 서비스
투자, 매매, 임대 상담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동산 전문 컨설팅 서비스
투자, 매매, 임대 상담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동산 전문 컨설팅 서비스
투자, 매매, 임대 상담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동산 전문 컨설팅 서비스
투자, 매매, 임대 상담